●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미-이란, 106일 만에 종전 합의…19일 스위스서 서명식	세계	-
2	코스피 종전 소식에 8,500선 회복…환율도 하락	경제	-

(1)기사/뉴스요약

미-이란, 106일 만에 종전 합의…19일 스위스서 서명식

[앵커]

전쟁의 끝이 이제 손에 잡히는 듯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도 바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전 합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미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쟁 개시 106일 만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 온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선 밴스 부통령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교전이 중단됩니다.

이란은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약속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명 이후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열립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에선 충돌을 멈춰 시장을 안정시킬 거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핵심 쟁점이 유예된 불안정한 미봉책에 불과하단 평가도 제기됩니다.

핵심: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다.

(2)기사/뉴스요약

코스피 종전 소식에 8,500선 회복...환율도 하락

[앵커]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 금융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라 8천5백 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개장한 코스피,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장 중 한때 8600선을 넘었다, 8,545.98로 마감.

하루 만에 5.2%, 4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7천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투자심리가 살아났단 분석입니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반도체 주가에 대한 우려도 누그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며 33만 원대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6%대 상승하며 22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15일)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며,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원·달러 환율도 8원 70전 내리며, 1,511원 10전으로 낮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핵심: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코스피 5% 넘게 올라 8천5백 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스페이스X	미국의 항공우주 장비 제조/생산 및 우주 수송 회사이다.	시사상식 사전
2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축구경기 전,후반 각각 22분 시점에 부여하는 3분가량의 휴식시간으로, 기존 쿨링 브레이크와 달리 날씨나 경기 환경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시사상식 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개표 오류 정황 4번 선거에서 7곳…"100표 이상 투표수 차이"	사회	-
2	불혹의 거미손 골키퍼…카보베르데, 무적함대 울렸다.	세계	-

(1)기사/뉴스요약

개표 오류 정황 4번 선거에서 7곳…"100표 이상 투표수 차이"

[앵커]

개표 오류가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단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처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동 단위 7곳에서 발견됐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지방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윤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당일 유권자는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 후 한 투표함에 넣습니다.

제대로 투표했다면 투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개표 오류를 시인한 것도 백 표가 넘는 투표수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간 지방선거 투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선 선거 당일 교육감 투표수가 단체장과 비교해 500표가량 적었고, 2018년 대구 효목2동에선 시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179표 차이가 났습니다.

4번의 선거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1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난 곳만 모두 7군데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 읍면동의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일 인천 서구 가좌 3동과 4동에선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정확히 520표씩 차이가 났습니다.

KBS의 문제 제기에 서울과 인천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전북 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 날 문제를 파악하고도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적인 은폐인지, 단순 누락인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동 단위 7곳에서 발견됐다.

(2)기사/뉴스요약

불혹의 거미손 골키퍼...카보베르데, 무적함대 울렸다.

[앵커]

이번 대회 최대 이변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습니다.

마흔 살 노장 골키퍼 보지냐는 스페인이 날린 슛 스물일곱 개를 모두 막아낸 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포르테의 기습적인 헤더도, 토레스가 날린 낮게 깔리는 슈팅도 카보베르데 보지냐의 벽에 막힙니다.

["페란 토레스! 그러나 잡아내는 보지냐입니다. (와, 페란 토레스 화나겠는데요.)"]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카보베르데의 보지냐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무명 골키퍼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돋보인 보지냐의 선방 덕분에 축구 변방인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와 비기는 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카메룬을 제치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무승부를 이끌어낸 순간, 보지냐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활약 덕에 5만 명에 불과했던 SNS 구독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보지냐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할머니'라는 뜻으로 본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축구 경기에 졌을 때 "할머니에게 이를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해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등록명으로까지 쓴 겁니다.

보지냐의 어머니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높은 비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에 가지 못한 사연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핵심: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서북부 대성양상에 있는 공화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7.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39살 메시 해트트릭, 대기록 쏟아졌다!	세계	-
2	한수원, 대형 원전 2기 경북 영덕, SMR 1기 부산 기장 후보 부지로 선정	경제	-

(1)기사/뉴스요약

39살 메시 해트트릭, 대기록 쏟아졌다!

[앵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톱스타 세 명이 오늘 모두 성가를 입증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축구사를 다시 썼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눈물을 흘리는 아르헨티나 관중들….

6번이나 월드컵에 출전한 메시를 향한 뜨거운 눈물 속,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전반 17분, 메시의 전매특허 왼발 감아차기 골은 자축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중앙선 아래에서 수비하던 알제리의 골문을 여는 데, 단 5초면 충분했습니다.

후반 15분 마칼리스테르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한발 빠른 움직임으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은 자신의 아들인 알제리 골키퍼 루카 지단의 데뷔전을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39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메시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1분에도 골문 아래에 낮게 꽂히는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포르투갈의 호날두 기록을 갈아치운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해트트릭!

동료에게 패스해 알제리 수비수를 떨쳐냈고 잠시 헐거워진 틈을 노려 허를 찔렀습니다.

200번째 A매치 경기에서 월드컵 통산 16골을 기록하며 독일의 클로제와 최다 골 동률까지 이뤄냈습니다.

80분만 뛰면서도 각종 월드컵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간 메시는 자신이 왜 이 시대의 '축구 황제'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핵심: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축구사를 다시 썼다.

(2)기사/뉴스요약

한수원, 대형 원전 2기 경북 영덕, SMR 1기 부산 기장 후보 부지로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원전 SMR 1기를 지을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정했습니다.

한수원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후보 부지로 선정 의결했습니다.

신규 원전 후보지가 정해진 건 2012년 영덕 천지원전 부지가 선정된 이후 14년 만입니다.

부지선정위는 대형원전 신청 지역인 경북 영덕군은 91.01점, 울산 울주군은 82.63점을 획득했고, SMR 신청 지역인 부산 기장군은 87.11점, 경북 경주시는 84.56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 이내/밖), 부지적정성/환경성 분야 등에서, 기장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 이내/밖), 부지적정성 분야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덕에 들어설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최대 출력 1.4기가와트씩으로, 완공되면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기장에 건설되는 국내 1호 SMR은 최대 출력 0.7기가와트(700메가와트로)로, 보통의 SMR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설계되는 걸 감안하면 다소 큰 규모입니다.

한수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 부지에 대해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후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최종 부지로 확정됩니다.

기후부와 한수원은 2031년 신규 원전 착공에 들어가 SMR 1기는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새로 짓기로 했고,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원전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은 종전과 달리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공모 방식을 택해, 원전 건설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요건을 중점 심사했습니다.

다만, 환경 오염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여전하고,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역 여론도 상당한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 원전 SMR 1기를 지을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정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해트트릭	축구나 하키 따위의 경기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 이상을 넣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2	소형모듈 원전 SMR	일반 원전에 비해 작고 발전 효율이 좋은 원전	표준국어대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9천 돌파	경제	-
2	돈 안 내고 월드컵 훔쳐보는 북한…'도둑 중계' 시작?	-	-

(1)기사/뉴스요약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9천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18일) 오후 1시 2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6.93포인트, 1.77% 오른 9,021.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처음으로 9천 선을 넘은 건 오늘 오후 12시 53분쯤입니다.

지수는 20.68p(0.23%) 오른 8,884.92로 출발해 8,900선 초반에서 오르내리다 오후부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수 산출 이래 처음으로,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에만 4천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올 초 4,309.63에서 1월 22일 5,000, 2월 25일 6,000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6일과 15일 각각 7,000과 8,000 고지를 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기가 8.46%, SK하이닉스가 6.66%, SK스퀘어가 5.83% 각각 상승하는 등 주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6,077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5,532억 원어치, 1,37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은 것은 지수 산출 이래 처음이다.

(2)기사/뉴스요약

돈 안 내고 월드컵 훔쳐보는 북한...'도둑 중계' 시작?

북한이 FIFA로부터 공식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국영방송으로 재전송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축구 전문 소식을 전하는 알레르타문디알은 17일 SNS 계정을 통해 "북한이 공식 중계 신호를 해킹해 2026 FIFA 월드컵 경기를 국영 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함께 올린 중계 화면엔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미국 대표 브랜드 광고가 그대로 노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레르타문디알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브랜드를 국영방송 화면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영상에는 스웨덴과 튀니지 선수 입장부터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 독일과 퀴라소 경기 장면이 보이고, 화면 상단에 '국제축구련맹 2026년 월드컵경기대회 조별련맹전'이라는 자막도 달려 있습니다.

알레르타문디알은 중계권이 없는 북한이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위성 신호를 수신해 월드컵 경기를 사실상 불법 재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중계권 보유 여부와 위성 신호 사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FIFA나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탭니다.

핵심: 북한이 FIFA로부터 공식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국영방송으로 재전송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UFC 프리덤 250	2026년 6월 14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종합격투기 경기를 말한다. 대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리는 명분으로 기획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에 맞춘 이벤트라는 점과 백악관을 격투기 경기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시사상식 사전
2	데이비드 호크니	1960년대 영국 팝아트를 선도한 인물이자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린 화가로, 대표작으로 〈더 큰 첨벙〉, 〈예술가의 초상〉 등이 있다.	시사상식 사전

●사설스크랩_매일경제

기사: 신입 학력 제한 없앤 SK하이닉스...AI가 바꾼 인재상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문구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직무 수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공지능(AI)이란 시대적 변화가 일자리 시장의 오랜 문법까지 뒤흔들고 있다. 미래 인재상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하이닉스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없앤 건 AI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업화 시대엔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암기하는 인재가 필요했다. 대학 졸업장은 이러한 능력을 보증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은 인간보다 AI가 훨씬 잘한다. 시대가 바뀐 만큼 인재의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태원 SK 회장이 AI 인재상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른 이와 함께하는 '공감 근육'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미 해외에선 학력보단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게 대세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미국의 사업가 피터 틸은 2011년부터 아예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한 청년들에게 직접 창업 자금을 지원, 혁신가로 양성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창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AI 첨단 기술과 공학 인재 육성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인 지 오래다.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창업 경험과 유연한 사고가 진정한 실력으로 존중받고 있다.

우리 교육도 이젠 AI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내신 등급과 수능 점수에 매몰된 채 과거의 틀을 고집하는 교육으론 산업 현장의 수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청년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구직 활동마저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느는 건 교육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SK하이닉스의 실험이 실효성을 입증하고,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 널리 퍼져 채용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교육도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해선 곤란하다. AI 시대는 이미 와 있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중앙일보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	경제	-
2	“선관위 휴가자도 특별수고비”...올해 특별정려금만 55억	정치	-

(1)기사/뉴스요약

중앙일보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가 오늘(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중앙일보가 오늘 오후 하나은행 측에 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박장희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추진 발표 이후에도 중앙일보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어제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22매가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결제 제시됐지만, 예금 잔고 부족으로 변제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당시 입장문에서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절차를 긴밀히 협의 중인 단계"라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조기 상환을 이행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 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까지 이뤄지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구조조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신청 이후 채권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돼 정상화 가능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일보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따라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구조조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기사/뉴스요약

"선관위 휴가자도 특별수고비"...올해 특별정려금만 55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선거기간 중 휴가를 쓴 선관위 직원들도 이른바 '수고비'로 불리는 '특별정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로부터 오늘(19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정려금 5월분을 지급받은 선관위 소속 직원 가운데 선거기간 중 휴가를 쓴 직원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정한 이번 지방선거 선거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특별정려금을 받은 선관위 직원 가운데 15명은 단순 연가를, 11명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특별정려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며,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종의 수고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 직원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특별정려금으로 월 15만 원씩을,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선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5,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대선때 지급됐던 특별정려금(11억 1,400만 원)보다 5배 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사무를 엉망으로 만든 선관위가 연가·병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떡값처럼 특별정려금을 지급한 것은 책임없이 권한만 누려온 선관위의 실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인 선관위의 특별정려금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선서기간 중 휴가를 쓴 선관위 직원들도 이른바 수고비로 불리는 특별정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워크아웃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	시사논술 개념사전
2	특별정려금	각종 선거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종의 수고비다.	KBS

●사설스크랩_조선일보

기사: 국내 첫 SMR 확정, 반도체 이을 K-원전 미래로 키워야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로 최종 확정하며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핵심 설비를 한 용기에 넣고 공장에서 모듈을 찍어내 현장 조립하는 SMR은, 원전 산업을 건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탈바꿈시킬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특히 이번 기장에 건설될 SMR은 우리가 독자 설계해 지식재산권을 쥔 '한국형 혁신 원전(i-SMR)'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주권의 도약을 뜻한다. 우리의 제조·기자재 공급망은 미국 선두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 만큼 독보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파워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고, SK와 HD현대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SMR이 가진 압도적인 강점은 송배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형 원전은 해안가에서 전력 수요처까지 초고압 송전탑을 짓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 반면 SMR은 뛰어난 안전성을 바탕으로 대도시 인근이나 대규모 공단 바로 옆에 위치하는 '분산형 전원'이 가능하다.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요동치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전력이 안정적이어서, 경기 용인이나 이천·청주의 반도체 산단 한복판에 설치한다면 전력 불안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사고 시 자연 냉각이 가능해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작고 피해 반경도 제한적이어서 친환경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탄소 중립의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보 우려로 서방 공급망에서 배제된 중국·러시아를 제외하면 AI발 전력 대란을 해결할 SMR 시장의 주역은 결국 미국과 한국이다. 미국은 설계 기술을 가졌지만 30년 건설 공백으로 기자재 공급망이 고사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뛰어난 시공·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기술·금융에 한국의 제조력을 결합하는 '한미 원전 동맹'은 수천조 원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열쇠다.

부산 기장에 들어설 국내 첫 SMR은 지역 전력 공급을 넘어 K-원전의 시공력과 안전성을 세계에 증명할 강력한 수출 플랫폼 역할도 하게될 것이다. 정부는 2035년 가동 목표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예타 면제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회 역시 이념 정쟁을 멈추고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주권과 첨단 산업의 미래가 SMR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